

항가리 Nagymaros 댐 건설 중단

항가리 정부는 정치적 압력과 여론에 굴복하여 Nagymaros 댐 건설을 중단하였다.

이 댐은 항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의 2개국 공동사업중 일부이다. 이 사업은 1977년에 체결된 두 정부사이의 조약에 의한 것으로서 만일 항가리측에서 댐 건설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항가리 정부는 체코슬로바키아측에서 이미 완료한 댐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泫에 관하여 補償을 해야할 형편이다.

이 사업은 Danube Project로서 그림1에 표시된 것과 같이 서로 약 40km 떨어진 지점에 2개의 대규모 댐(발전용량 160MW의 Nagymaros 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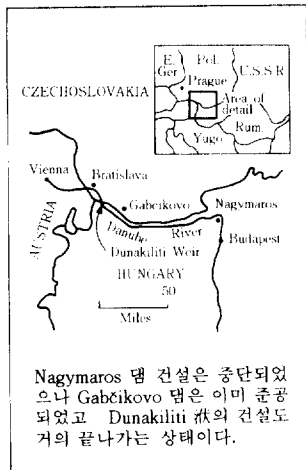


그림1. DANUBE PROJECT

720MW의 Gabčíkovo 댐)과 Dunakiliti 泫 그리고 약 25km의 水路工事を 포함한다. Gabčíkovo 댐은 체코슬로바키아측에서 이미 완료하였고, Nagymaros 댐과 水路工事は 항가리측에서 건설을 중단한 상태이다.

댐건설을 반대하는 압력단체들의 주장은 저수지에 물을 저장함으로써 水質을 악화시키며, 대규모 발전에 따라 hydro surge가 생겨 용수공급에 지장을 받게되고 자연환경을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댐건설을 지지하는쪽에서는 환경조건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Danube江은 옛부터 극심한 홍수피해를 유발하였으나, 이 사업으로 인하여 피해가 輕減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Danube江의 운송능력도 20%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경제적인 이득 이외에도 지지자들은 舟運에 의한 화물운송이 다른 교통수단보다도 에너지 요구량이 적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하수처리장과 진입도가 건설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항가리인은 이를 위한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상에 기술한 것과 같이 댐건설을 지지하는쪽과 반대하는쪽의 의견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다 객관

적인 이해를 위하여 외부 조사단과 자문단의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조사단을 이끌었던 미국 Wisconsin-Milwaukee 대학의 Karadi는 이 사건을 “정치적 경제적 악몽(a political and economic nightmare)”이라고 표현하였으며, “극복하지 못할 심각한 환경문제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조사단은 Danube江을 끼고 있는 항가리 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하수처리장을 더 많이 건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Gabčíkovo 댐이 원래 하루에 4시간씩 최고상태로 운영계획된 것을 1시간으로 감축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도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항가리 정부는 댐건설을 중단한 상태에서 아직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Water Power & Dam Construction(1989.7.)에 의하면, 상승하는 건설비용과 환경주의자들의 반대때문에 Miklov Nemeth 항가리 수상은 댐건설사업을 영원히 포기하게되리라 보고 있다. ☹

■ 자료 : Civil Engineering, August 1989. pp.54-56.

Water Power & Dam Construction, July 1989. p.3.

■ 자료제공 : 金 勝

(水資源研究室)